

순수·열린 마음은 불의와 타락 초월

호주 원주민 '참사람부족'이 문명인들에게 전한 <무탄트 메시지>(정신세계사)가 전세계 인류에게 던진 화두는 너무나도 강력했다. 그 메시지는 '자연과 함께하는 진정한 삶으로 돌아가라'



이다. 이 책 <참사람부족의 메시지>는 한 용기있는 미국 백인 여의사 말로 모건이 호주 참사람부족과 함께한 그 감동의 여정을 기억하는 독자들에게, 애타게 기다리던 두번째 메시지다.

말로 모건은 이 소설에서 다시 한번 참사람부족(사진 왼쪽)의 영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영원으로부터 보낸 메시지는, 영원히 자기 자신이 되는 순수함과 열린 마음이 세상의 불의와 타락을 초월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치와 단순한 지혜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사람부족의 메시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백인에 의해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던 호주 원주민 쌍둥이가 자신의 뿌리를 찾던 끝에 다시 만나게 되는 여정의 이야기이다. 쌍둥이 중 남자가 제프는 미국 목사 가정에서 입양되어 뉴잉글랜드에서 성장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모르는 삶을 산다. 제프의 쌍둥이 누이는 호주의 고아원에서 성장한 후 어른이 되어 하숙집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열망을 갖고서, 도시의 삶을 벗어나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북쪽 사막 지역에

로 떠난다. 힘든 여행 끝에 원주민들을 만난 그녀는 그들과 함께 사랑을 방랑하는 여행을 시작한다. 제프는 미국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10대 소년이었던 그는 집을 떠나 범죄와 알콜에 빠져들면서 소외된 삶을 살게 된다. 알콜 중독으로 점점 파멸의 길을 걷던 제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사형선고를 받는다. 수십 년 동안 호주의 오지에서 원주민들의 삶에 대해

호주 원주민들의 영적세계관

소설 줄거리속에 녹아들어서

배운 뒤, 베아트릭스는 사막을 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떠나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사람'이 된다. 원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정치적인 행동주의자가 되어 무탄트(돌연변이)라는 뜻으로 원주민이 문명인을 가리키는 말 세계로 돌아간 것이다. 그녀는 외국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원

'참사람 부족의 메시지'

말로 모건 지음 / 도솔 옮김
정신세계사 / 1만원



주민들을 호주로 돌려보내고, 어린 시절에 자신의 문화를 빼앗긴 원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앞장선다. 이런 활동으로 쌍둥이 오누이는 다시 만나지만 자신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한다. 베아트릭스는 미국에 있는 제프에게 원주민들의 철학과 조화로운 삶의 원칙을 담은 '영원'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내면서 호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한다. 거기에는 '영원히 자기 자신이 되는 순수함과 열린 마음이 세상의 불의와 타락을 초월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치를 존중하며 단순한 지혜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대한민국 사(史)'

한홍구 지음
한겨레출판사 / 1만1천원



새 시각서 탐구한 한국 근현대사

매일 아침 연구실에 도착하면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지만, 스팸 메일을 지우는 것이 시간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우면서도 내가 중요한 메일을 스팸 메일인줄 착각 하고 지우는 것이 아닌가하는 조바심이 들기도 한다. 어느 날 인터넷 서점에서 보낸 스팸 메일을 우연히 열어 보니, 한홍구씨의 <대한민국 사>가 소개되어 있었다. 그래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책을 주문하고 다음날 책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평소 한홍구씨의 글을 접할 때마다 그의 글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 배울 수 없었던 우리 역사를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기준으로 역사를 봐야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내용이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책을 읽고난 후 나의 머릿속에는 우리 국민이 왜 분단이라 정통성 없이 이 사회를 지배해온 수구세력에게 이용 되었다 하는 생각이 펼쳐질 수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또한 대한민국은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건설되었고, 청산은커녕 근대화를 위해서 혼란되어져 있는 친일파들을 등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 시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다음 시대로 바쁘게 이동 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한홍구씨는 '단 한번도 왕의 목을 치지 못한...'이라는 소타이틀로 책 1권 처음에 소개하고 있다.

<한겨레21>에 연재됐던 것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었지만 오히려 한두 해가 지난 지금, 다시 읽는 것이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수구와 보수의 차이를 '통과 원장' 만큼이나 다르다며 쓴 '참된 보수를 아십니까?'와 연좌제 문제 그리고 독립운동가 집안의 가족사 등은 또 다른 생존방식인 '편 가르기'라는 표현으로 날카롭게 지적해내고 있다.

'빨갱이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소타이틀의 글에서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논했는데,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던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좀더 인간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의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아무 언급이 없이 일방적으로 북에 대한 비전향 장기수와 전향 장기수만을 기술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같이 다뤘다면, 글쓴이가 강력히 주장하는 비전향 장기수의 인권문제가 좀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일제 청산 불발 등 뼈아픈 과거역사 지적

대한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한 체계를 잡아주고, 막연히 잘못 알고 있었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역사라고 불리는 세상의 이면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품는 자세를 가지게 해준다.

시간이 항상 우리의 준비보다 빨리 달려가는 듯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근현대사는 항상 우리의 준비보다 앞서 갔고, 조선 후기 이래의 자생적인 근대화는 피지도 못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에 짓밟혔다. 일제치하에 우리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벌였지만,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해버려 우리는 독립이 되었고, 독립 후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남과 북이 갈랐다. 우리는 또한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하고, 아무 대가없이 제국주의 근대에 편입하게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떨어진다 고 표현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등 현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친 조직들이 근대적 이익집단을 대신하여 기세를 부린다고 보았다.

우리의 현대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아직까지도 일제청산과 많은 부정부패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 오히려 정치하게 살면 손해라는 생각이 우리사회에 팽배해져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현대사가 잘못되었으니 그냥 둬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 없이 살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우리가 우리의 현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무지에서 벗어날 때 좀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쓰인 것 같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 역사의 교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는듯싶다.

■장지현 /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 교수

총 2권으로 돼 있는 <대한민국 사(史)>는 2001년 1월부터 <한겨레21>에 '한홍구의 역사이야기'란 제목 아래 인기리에 연재한 것을 모은 글이다.

가족·학교·사회로부터

홀로서라

된다. 오소는 또 이 책에서 "가족, 학교, 사회에서도 홀로 서라"고 강조한다. 최근 한 여자대학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녀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0퍼센트가 자녀를 기질 계획이 없으며, 19퍼센트는 결혼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소는 오히려 박수를 보낸다. 부모와 자녀가 이루는 가족이란 골짜기는 서로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도구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교육 아래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며, 부모는 자식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또 어떤가? 획일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을 똑같은 생산

품으로 만들어내는 여러척은 곳일 뿐이라고 오소는 비난한다. 또 사회는 어떠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치관은 개인의 개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누릴 기회를 없애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오소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혼과 낙태가 많은 것이 사회의 탓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소는 이 책을 통해 제안한다. "부모와 사회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라. 더 이상 선택하지 말아라. 단지 홀로 있어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회 대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라." 모두가 부모이고, 모두가 자식인 공동체야말로 소유와 억압의 관계없이 자



'사랑·자유 그리고...'

오소 지음 / 손민규 옮김
청아출판사 / 1만원

유로울 수 있고,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결국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은 홀로있음과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상대를 구속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김주일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값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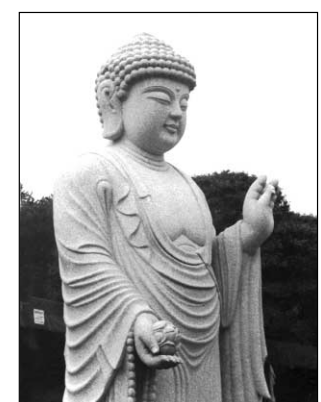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악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하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계 精進하시옵기를 祈願
드리으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의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필(보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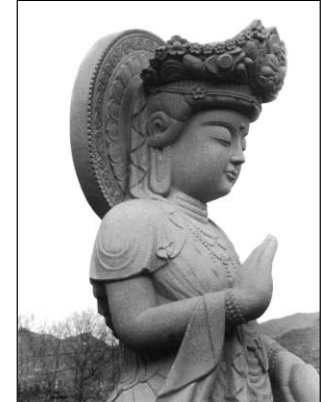
식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7가지 下藥 1257가지로 모두 3657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